

‘삼귀의’ ‘사홍서원’

작곡가 **최영철** 씨



귀 기록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귀 기록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귀 기록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최영철 씨는 필순을 바라보는 노구에도 직접 피아노를 치며 13개의 사찰합창단을 지도하는 등 지역의 불교음악 발전을 위한 일에 몸을 아끼지 않는다. 4월 24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연등등식에서 찬불가를 연주하는 최영철 씨와 합창단.

## “찬불가 열심히 부르면 날마다 좋은날입니다”

24일 충남도청 건물앞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연 등 점등식. 다른 불교행사와 마찬가지로 이날 점등식도 삼귀의로 시작해 사홍서원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찬불가로 행사장의 합창단을 이끈 이가 바로 ‘삼귀의’와 ‘사홍서원’의 작곡가 최영철씨(79)다.

찬불가 중의 찬불가랄 수 있는 ‘삼귀의’와 ‘사홍서원’. 이 두곡을 모르는 불자는 없지만 이곡을 작곡한 이가 최영철씨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본인이 작곡한 유명한 찬불가를 듣는 기분은 어떠할까. 32년동안 들어왔지만 때면 ‘신비로운 느낌’이 든다는 것이 최씨의 고백이다.

### 30년 외길 ... 1백여곡 발표

1971년 불교연합회에서 전 불교계가 공동으로 부를수 있는 삼귀의와 사홍서원에 대한 작곡을 현상 공모했을때 최영철 씨는 대전 보문고의 음악교사로 재직중이었다. 종립학교인 보문고의 이재복 교장의 권유로 평소 틈틈이 찬불가를 작곡해 온 그는 두곡을 응모했다. 그때 심사위원으로는, 유명한 작곡가 김동진 선생을 비롯 음악인들과 스님들, 불교학자 등이 끌고루 있었다. 응모된 곡을 직접 듣게 하고 투표를 했는데 최영철씨 곡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당선후 최영철씨의 찬불가 작곡은 탄력이 붙었다. ‘찬불가’라는 개념조차 없을 때여서 부르는 사람도 없고 곡을 알리지조차 힘들었지만, ‘행무지를 개간하는 마음으로’ 찬불가를 만들었다. 피나는 노력으로 한국한곡 세상에 선을 보였지만 무관심과 냉담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누구를 원망하기 보다 열정과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자신을 돌아보았다고 한다. 우리의 전통음악인 범패와 국악, 민요 선율도 응용하는 등 ‘한국적 찬불가 만들

기’에 힘을 기울였다. 그동안 발표한 찬불가가 1백여곡.

최영철씨는 1925년 충남 금산에서 태어났다. 일본 도쿄 도요음악대학(현 동경음악대학)에서 작곡을 공부했다. 54년부터 90년 정년때까지 대전 보문고에 재직했으며 대전관현악단·충남대 관현악단의 상임지휘자를 맡는 등 지역의 음악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나르바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4월 24일 가진 음악회에서 연주한 ‘부처님이야기’가 최씨의 대표작. 부처님의 탄생부터 열반까지를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20분짜리 교향곡이다. ‘부처님 이야기’를 비롯, ‘당신의 미소’ ‘나무 관세음보살’ ‘마음’ ‘묵타소리’ ‘삼각산 마루터에’ 등이 대중에게 널리 애청되고 있다.

최영철씨는 지난 87년과 91년 각각 불교계 최초로 개인 찬불가집을 출판한 기록도 세웠으며 지역에서는 열리기 쉽지않은 불교음악회도 꾸준히 열었다.

최영철씨는 평소에는 말이 거의 없다. 그의 찬불가가 곳곳에서 그의 감정을 표현해 주기 때문일까. 그가 만든 찬불가는 그의 성격처럼 간결하고 부르기 쉽다는 평이다. 필순을 바라보는 요즘도 시간만 나면 오선지를 붙잡고 골똘히 상념에 잠긴다.

“찬불가는 열린 마음, 바르게 새기겠다는 마음으로 부르고 또 들어가야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진리를 담고 있잖아요. 나는 찬불가가 세상을 정화시키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찬불가만 열심히 불러도 나쁜 짓 감히 못할 거예요. 저절로 청정해지는 거지요”

음악은 묘한 힘을 가지고 있다.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일체감을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찬불가를 작곡 의도대로 잘 연주해 주고, 듣는 사람도 일체감을 느낄때 참다운 음성공양이

된다. 그럴 때 느끼게 되는 작곡한 사람으로서의 뿌듯함과 가슴에 차오르는 환희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경구(驚句)도 있잖아요. 작곡이란 혼자서 해야 하는 고독한 작업이지만 이 노래를 불자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며 예배올리는 정감한 마음으로 부른다고 생각할 때 조금의 태만도 있을 수가 없지요. 음악이란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욕심이 지나치면 그 집착이 곡에 그대로 드러나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오로지 음(音)과 하나 될 때 마음에 드는 곡이 나오지요. 그것이 불자들에게 의해 불려질때 그렇게 기쁠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악상이 떠오르면 그것을 화두로 삼아 밤낮으로 매달린다는 그는 작품을 고치고 또 고치고 마음에 들때까지 손질을 계속한다. 어떤 곡은 6개월 내지 1년을 묵히다가 다시 꺼내 완성한 것도 있다.

최영철씨는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곡을 지향한다. 찬불가를 작곡할 때 가장 경계하는 것이 자기도취에 밀려들어 가는 일이다. 듣기 편하고 어디서나 부르기 좋은 노래로써, 부를수록 즐겁고 마음의 때까지 씻긴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 “좋은 찬불가 많이 나와 생활화되길”

79세면 오래전에 은퇴를 하고 소일거리러 찾은 나이지만 그는 현재 13곳의 사찰합창단을 지도하고 있다. 서울같은 대도시와 다르게 음악적 감각이 부족한 점 등 여건이 척박하지만, 그렇기에 쏟는 정성은 더욱 간절하다. 합창단원 대부분이 중년주부이며 아마추어들이라 제대로 된 화음을 뽑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보실들이 찬불가 부르는 일을 좋아하고, 지역의 불교음악을 발전시키는 일에 일조한다는 차원에서 즐겁게 하고 있다.

내년 4월, 삼보불교음악협회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최영철 음악회’가 열린다. 30년 넘게 찬불가 작곡의 한 길을 걸고, 누구보다도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최영철씨의 외길 한평생을 기리는 자리가 될 것이다. 최씨는 이날 발표되는 자신의 곡 연주체제를 직접 지휘할 생각이다.

“불교합창단은 예전에 비해 많아졌어요. 그러나 찬불가 짓는 사람은 그렇게 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재능있는 작곡가들이 좋은 찬불가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불교계가 적극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나도 죽을 때까지 좋은 찬불가 작곡에 정진하겠어요.”

대전=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mailto:gslee@buddhapia.com)



◇언제나 ‘현역’이기를 고집하는 ‘찬불가의 개척자’ 최영철 씨. 요즘도 틈만 나면 좋은 찬불가를 만들기 위한 구상에 여념이 없다.

# 발(足)에도 자비를 베풀소서!

절에 가시면 마음이 편안해 진다구요?  
이제 당신의 발에도 편안함을 주세요.  
더 편안해진 트렉스타 성불화 자비로II

어머니건강하게 오래오래하세요

## 더편안해진성불화 자비로II

여/230~255mm

남/250~280mm

Only One Number One  
**(주)트렉스타**  
[www.treksta.co.kr](http://www.treksta.co.kr)

**자비로 II 제품특징**

- 천연가족뉴벽의 사용으로 착화감이 뛰어나
- 하이퍼그립의 사용으로 미끄럼방지 및 접지력탁월
- 신고벗기에편한슬립온(Slip-On)스타일
- 통기성이뛰어난 고급삼베 깔창(인솔)사용
- 특수방수처리(생활방수기능)
- 가볍고편안해서 여성분자및 스님에게적합

**전국 르까프 매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본 사: 02-320-0600 유통영업팀: 02-320-0795 동서울지점: 02-320-0624  
남서울지점: 02-320-0786 대전지점: 042-487-9601 호남지점: 062-511-8377  
영남지점: 051-309-7110 대구지점: 053-382-8163